

## 응우옌 왕조의 만상(萬象) 대응 추이:

‘속국’ 방기와 영토 획득\*

최 병 옥\*\*

### 국문초록

19세기 전반 가장 능동적이고 영예로운 라오 지배자로 평가되는 짜오 아누는 삼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방콕의 거리 한쪽에서 철창 안에 갇힌 채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베트남의 황제는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삼의 개입에 저항하려 했던 이 가련한 만상의 왕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 동원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베트남 민망 황제가 왜 짜오 아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궁구한다. 민망 황제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가? 어떻게 민망 황제는 자신의 의무를 회피했는가? 무엇이 그 결과였는가?

만상은 19세기 제국의 지배자인 베트남 황제들에게 중요한 조공국으로서 베트남 황제들의 권위를 받쳐주는 기능을 했다. 제국에게 충분한 숫자의 조공국을 갖는다는 건 필수적이었다. 조공을 받는 대신 황제는 그의 왕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었다.

짜오 아누가 도움을 요청하자, 처음에 베트남 황제와 그의 관료들은 충실한 후원자가 되고자 했다. 그런데 만상의 한 조공국 수장으로서 씨엥코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짜오 노이가 베트남에 지원을 요청했다. 민망의 생각이 바뀌었

\* 이 논문은 2017년도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18년 8월 한국동남아시아학회 학술대회(서강대학교)에서 이 글의 초안이 “응우옌 왕조의 만상 지원 추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인하대 사학과, choibyoungwookls@gmail.com

다. 그는 씨앵코앙이 과거 베트남의 찢닌 지역이라 간주하고서 라오의 씨앵코앙을 베트남의 땅으로 바꾸려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짜오 아누는 버려졌다.

이 글에서 논해지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소위 조공국에 대한 베트남의 인식이다. 베트남 조정에 조공을 바쳤다는 나라들, 즉 베트남이 속국이라고 인식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베트남이 조공국 내지 속국 왕의 임명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았다. 만상이 자롱, 민망 시기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지만 두 황제가 만상의 왕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만상 왕에 대한 통제권은 태국에 있었고 베트남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베트남이 19세기 전반에 배타적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나라는 캄보디아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공국이라는 지위가 베트남 제국의 번영으로서 영원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결국 캄보디아도 베트남의 일부로 합병되었다. 19세기 베트남 황제들에게 조공국은 앞으로 자기 영토의 일부가 될 후보지였을 뿐이었다.

**주제어:** 라오, 만상, 비엔티안, 찢닌, 씨앵코앙, 민망, 짜오 아누, 짜오 노이, 조공, 책봉

## I. 머리말

라오스의 존재는 베트남 사료 속에서 다소 혼란스럽다. 위치도 그러하고 위상도 그러하며 국명도 그렇다. 우선 이름을 들자면, 라오스 쪽의 ‘나라’로 애뢰(哀牢), 로과(老耄), 만상(萬象), 남장(南掌)에 더해 락환(樂丸)이니 륝환(陸丸)도 있다. 응우옌 왕조의 ‘실록’ 중 만상과 남장 조를 보면, 전자는 과거의 애뢰, 후자는 로과라고 정리된다.<sup>1)</sup> 그런데 애뢰 같은 단어는 시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바가 달랐다. ‘실록’에서조차 이 단어는 혼란스럽다. 애뢰와 만상

1) 『大南寔錄正編列傳初集』(1889.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研究所, 1962)(이하 『初集』), 33:8a, 33:27a.

이 때때로 병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몰이해의 극치는 3대 황제 티에우찌(Thiệu Trị 紹治, 1841-1847)의 질문에서 보인다. 황제는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다. “레 왕조의 역사에서 기록된 애뢰가 어딘가?” 박학하기로 이름 높았던 쓰엉당꾸에(Trương Đăng Quế 張登桂)가 나서 대답했다. “타인호아와 응예안 일대 서남쪽으로 만상과 접한 곳은 모두 그곳이었습니다.”<sup>2)</sup> 그런데 『대월사기전서』<sup>3)</sup> 중 레 타인퐁(Lê Thánh Tông 黎聖宗, 1460-1497) 때의 기사를 보면, 로과는 당시 란쌍 왕국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이 확실하고 애뢰는 타인퐁이 흡수해 쩐닌으로 이름 붙이게 되는 분만(盆蠻) 또는 분망(盆忙)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애뢰의 분망’이 1434년 음력 8월에 공물을 바쳤다가, 1435년 음력 4월에 ‘애뢰의 과망(搗忙)’이 내공하고, ‘애뢰 잠망(蠶忙)’이 꼬끼리 한 마리를 바쳤다는<sup>4)</sup> 기사를 보면 쓰엉당꾸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1479년 7월 황제가 애뢰를 친히 정벌했다는 기사를 상기하면 애뢰는 비엔티안에 중심지를 두고 동북부 방향으로 베트남에 인접한 지역까지 통제하던 권력 주체처럼도 보인다. ‘실록’의 외국 열전 중 ‘남장’ 조에도 레 타인퐁이 9만의 병사를 이끌고 세 길로 군대를 전진시켜 애뢰를 깨고 로과로 들어갔다고 했다. 14세기 이래 란쌍 왕국의 수도는 루앙프라방이었다. 삼센타이 왕(1373-1416) 사후 한동안 지속된 왕위 계승 분쟁 끝에 최종적인 승자가 되어 1442년 루앙프라방에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은 원래 비엔티안을 근거지로 했던 왕자였다. 비엔티안이 만상으로 이해될 소지는 여기에 있었다. 이 비엔티안이 예를 들어 분만에 대한 중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베트남에서 볼 때 분만이나 분만을 비롯한 주변 소국이 전부 만상인

2) 『大南寔錄正編第三紀』(1894. 東京: 慶應義塾大學言語研究所 1977)(이하 『寔錄』3), 20:2b.

3) 陳荊和 編校, 『大越史記全書』(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5).

4) 망은 소국을 의미하는 타이 어휘 무앙을 표기한 글자이다.

것이다.

만상이 진화되어 라오스라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게 19세기 말 프랑스에 의해서였다. 비록 라오스의 역사 기원이 14세기 란쌍 왕국에까지 소급된다고는 하지만 베트남과 인접한 지역은 중앙 정권의 직접 통치라기보다는 중앙과 느슨히 연결된 독립된 소국들이었다. 그래서 베트남-라오스 관계라는 건 반드시 양국 중앙 조정끼리의 군사 혹은 외교 관계가 아니었다. 더욱이 18세기에 들어서서 루앙프라방 왕국과 비엔티안 왕국이 적대 관계 속에서 양립했다. 프랑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오스는 상기의 두 개 왕국에 더해 현 라오스의 남부 즉 태국의 영향권 내에 있던 참파씩까지<sup>5)</sup> 합쳐서 구성된 나라였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나라는 1828년에 망한 만상 왕국이다. 현재 라오스를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볼 때 중부 비엔티안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가 만상으로서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후에(Huế)와 접촉이 많았기에 베트남 황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던 라오스 쪽의 나라가 만상이었다. 더욱이 만상의 왕은 위난의 시기에 베트남 쪽으로 망명해 베트남 황제의 도움을 요청했던 까닭에 신복으로서의 외국 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캄보디아의 왕이 일찍이 베트남으로 망명했던(1812) 사례와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베트남 황제의 군대는 망명한 소국의 왕을 호위해 자신들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다.

만상의 문제는 베트남의 제국 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황제국을 자처하던 19세기 응우옌 왕조에게 만상 왕국은 조공국들 중의 하나였다. 이 조공국이 베트남 황제의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나 역시 이런 견해를

---

5) 참파씩은 '실록'에 혼마랄(欣麻辣)로 표기되는 곳이었다. 베트남에 조공을 바치려 온 나라로는 기록된 바 없다.

갖는 사람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1828년에 만상을 잃었다. 잃었다기보다 포기 내지 방기했다고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만상의 왕은 방콕으로 끌려가 사망했고 그의 수도 비엔티안은 태국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런 정황 하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응우옌 왕조, 특히 민망 황제에게 만상은 어떤 존재였기에 소중한 왕 하나를, 더군다나 자신에게 간절히 의지하고자 했던 만상 왕을 포기하고 그가 방콕으로 끌려가 죽는 걸 그냥 두고 보았을까? 캄보디아 지배에 그토록 집착했던 후에 조정이 만상에는 왜 무심해 보이기가까지 했던가?

즉위 후 십년 쯤 되어가던 시점에서(1829) 민망 황제는 자신의 치적을 자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남으로 개척한 땅이 천리다.”<sup>6)</sup> 이는 무엇을 의미했던가? 황제가 앉아 있던 수도 후에에서 서남쪽은 캄보디아 영역이었다. 이때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에 충실했던 양편 왕이 생존해 있었다. 때문에 이곳으로의 영토 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서남쪽은 전통적인 베트남 중심부 즉 홍하 델타의 탕롱이나 응우옌 씨의 고향인 타인호아를 기점으로 한 방향이다. 민망이 가리킨 곳은 만상 및 만상 관할 영역이었다. 이미 태국의 영토로 편입된 비엔티안을 두고 민망 황제가 자기 땅이라고 했을 리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서남부 땅은 베트남 입장에서 말하는 쩌닌(Trần Ninh, 鎮寧) 지역을 이름이었다. 쩌닌은 민망 황제가 만상의 왕 짜오 아누(세타티랏 5세, 1805-1828)를 버린 대가로 확보한 땅이었다. 현재 라오스 동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 대한 지리적 비정, ‘쩌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논해질 것이다.

베트남 역사를 연구하는 내 입장에서 볼 때 만상은 루앙프라방의

6) 『大南寔錄正編第二紀』(1861. 京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3)(이하 『寔錄』2), 59:26a.

남장과 더불어 베트남의 제국 질서를 떠받치는 조공국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중요했다. 그런 나라가 있었고 베트남에 조공 사절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였다. 그러나 만상이라는 이름은 베트남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주 인용되며 그 실체는 모호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군대가 메콩 델타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17세기부터 이웃 나라로서, 경쟁 상대로서, 그리고 번속국으로서의 면모가 비교적 자세하게 사료에 등재되었던 데 비해 만상은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다.

짜오 아누는 라오스가 내세우는 국가적 영웅이다. 라오스의 통합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태국과 충돌하며 도전까지 했던 관계로 태국 사학계의 주목도 많이 받는다. 비엔티안에는 메콩 강변에 서서 강 너머 태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동상이 있다. 그는 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아가 태국에 빼앗겼다고 간주되는 메콩 너머 지역을 회복하려고 분투하다가 희생당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과 라오스 사이에는 짜오 아누의 행적과 관련한 논쟁이 그치지 않는다.<sup>7)</sup>

나는 베트남의 국제 관계 인식이라는 틀 속에서 짜오 아누를 두고 진행된 베트남, 특히 민망 황제의 태도를 살펴보고 싶다.

제 1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만상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논하겠다. 참파나 캄보디아는 각각 단일 조공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라오스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나라 혹은 부족이 조공국들로 존재해 왔다. 그중의 하나였던 만상은 베트남에게 어떤 나라로 인식되었던가를 알아본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짜오 아누 시기 만상과 베트남의 관계를 살펴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쩌년의 문제가 다루

7) 이에 대해서는 조흥국, 「라오스의 태국에 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전략지역심층연구논문집: 인도-동남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타오 수라나리(Thao Suranari)와 1820년대 라오스-태국 전쟁에 대한 역사논쟁」(『역사와 세계』49, 효원사학회, 2016) 참조.

어진다.

장산 산맥 쪽을 바라보고 있던 민망 황제가 그 너머의 땅을 혹은 버리고 혹은 거두는 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19세기 다이남 제국의 판도를 구축해 나갔는가를 구경해 보자.

## II. ‘만상’의 이미지

우선, 베트남의 응우옌 씨 정권(이하 남조 南朝<sup>8)</sup>)에 조공 사절을 보냈다는 라오스 쪽의 ‘나라’들부터 살펴보자. 만상과 남장은 그 중심지가 명확하다. 하지만 그 외의 조공국들은 현재에도 확실한 위치 비정이 불가능하다. ‘실록’에 따르면 레 왕조 말기부터 ‘만상’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만상과의 관계는 ‘애뢰’라는 이름으로 리 왕조 성종 때(聖宗, 1054-1072) 조공 사절이 한 번 베트남을 찾은 것, 쩐 왕조 영종 때(英宗, 1293-1314)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던 일, 레 왕조의 태조 시기(1428-1433) 우호와 적대가 반복되었던 형편 등이 소개된다. 대체적으로 보아 18세기 말까지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의 지속적인 외교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던 것 같다.

라오스 쪽 ‘나라들’ 이름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건 1622년의 기록에서였다. 이해 “상[熙宗, 1613-1635]께서 [보시기에] 감로(甘露) 효강(孝江) 경계에 애뢰, 룡환, 만상, 쩐닌이 모여 여러 만인 부락과

---

8) 16-18세기 실질적으로 분립해 있던 두 개의 나라를 부르는 호칭은 다소 궁색하다. 베트남 사람들은 북쪽의 실세 성을 따 찌꾸옌 나쥘(Chính Quyèn Nhà Trịn), 남쪽을 찌꾸옌 냐응우옌(Chính Quyèn Nhà Nguyẽn)이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영문 표기는 각각 ‘Trịn Family’, ‘Nguyẽn Family’가 되며, 한자문화권에서는 ‘정씨(鄭氏) 정권’이나 ‘완씨(阮氏) 정권’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지어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찌 씨 정권’, ‘응우옌 씨 정권’이란 표현이 채용되었다. 글자 낭비를 피하고 실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북조/남조 또는 북국/남국이란 어휘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함께 모두 길을 이곳에서 통하니(皆有路通於此) 영채를 설치하게 하고 사람을 모아 [...] 그곳을 지키게 하여 애뢰영(哀牢營)으로 삼았다.”<sup>9)</sup>고 했다. 감로(이하 감로 Cam Lô)의 효강은 팽찌 성 소재로서 현재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의 상류 어디쯤이 애뢰영이 설치된 곳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혹 현재 베트남-라오스 국경선이 있는 아이라오(Ai Lào 哀牢) 관(關)을 포함하는 지역이 아니었나 한다. 이 당시 남조의 수도는 아직 팽찌의 아이뜨(Aí Tū 愛子)에 있었으니 팽찌에 속한 감로는 수도에 인접하면서 라오스 방면과 통하는 요충지였다. 1814년에 애뢰영은 애뢰도(哀牢道)로 바뀌었다. 동시에 그 배후 감로 역시 감로도(甘露道)가 되었다.<sup>10)</sup>

남조에 알려진 라오스 쪽 나라들 중에서 애뢰가 최초로 공물을 바친 것으로(哀牢來貢)(『前編』, 8:23b-24a)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1715년이였다. 애뢰는 그 의미가 매우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다. ‘슬픈’ 또는 ‘가여운(哀)’ ‘우리’ 내지 ‘감옥(牢)’이라는 뜻이다. ‘뢰’는 한동안 라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700년에 ‘뢰뢰(牢堆 Gò Lào)’라는 말이 나오고(7:16), 1731년에 “뢰인(牢人) 타출(訖卒)[이라는 사람이 자단을 침범했다.”는 기사나 “뢰적(牢賊)이 구남(求南)을 소란케 했다.”(9:6a-7)는 데서의 뉘는 다 형용사로 사용된 사례들이다. 1715년 남조에 조공 사절을 보냈다는 애뢰는 아마도 비엔티안 왕국(란쌍)이었을 것이다. 남조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던 사이옹후에가 란쌍 왕국의 왕이 되었기에 두 나라의 관계는 가까웠다. 그런데 이때는 애뢰의 사정이 급했던 때에 원군을 청하기 위해서였지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없다.

9) 『大南寔錄前編』(1844,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이하 『前編』), 2:6b.  
10) 『大南寔錄正編第一紀』(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1968)(이하 『寔錄』1), 50:9a.



라오 국가의 내공 기사가 1761년에 한 번 더 나온다. 그 나라는 만상이었다(『前編』, 10:31). 만상은 이후 응우옌 씨 정권에 가장 우호적인 라오 세력으로 이해되었다. 최초의 만상 사절을 맞은 이는 무왕이었다. 수도 푸쑤언을 중심으로 한 남조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데서<sup>11)</sup> 만상의 존재감은 컸다.

자딘-띠이썬 내전 탓에 만상은 베트남의 정치 속으로 깊이 끌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국에 들어선 딱신 정권(1767-1782)이 베트남-만상 관계의 변수가 되었다. 베트남 측에서 이해한 바로는 딱신의 만상 공략으로 만상 영역 21개의 소국(무앙, 芒) 중 13개 무앙이 태국에 넘어갔다(『初集』, 33:28a).

자딘과 띠이썬은 만상의 도움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두 개의 정권에게 만상에 대한 통제권 확보는 정권의 권위뿐만 아니라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 정도까지 중요해졌다. 이 시기 ‘실록’에 만상이란 명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만상 즉 ‘일만 마리의 코끼리’는 말 그대로 군사적 자원이며 부의 근원이었다. 전략적 기동로로서도 자딘-띠이썬 양군에게 만상 영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띠이썬은 수차에 걸쳐 장산 산맥을 넘어 라오스 영내로 들어갔다. 첫째 이유는 쩌닌(라오스 지명으로 Phuan)의 수장 솜푸(Somphu)의 요청이었다. 솜푸는 난타센(짜오 아누의 형) 왕이 지배하던 비엔티안 왕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1792년에 수천 명의 띠이썬 군대가 쩌닌으로 이동해 비엔티안을 위협했다. 그런데 상황이 묘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북부의 루앙프라방과 남부의 참파씩까지 통제권 아래 두려웠던 비엔티안은 태국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1) 이에 대해서는 최병욱,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동남아시아연구』27권2호, 2017) 참조.

그래서 비엔티안은 띠이썬에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띠이썬이 동의했다.<sup>12)</sup> 이에 자극된 방콕 측에 의해 난타센은 1794년 방콕으로 불러가 구금되었다가 사망했다(Kennon Breazeale 2002: 272).

이렇게 해서 태국의 지원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인물이 난타센의 동생 인타봉이었다. 그는 1786년 방콕으로 가 라마 1세를 만났던 적이 있다. 이때 거기에 머물던 응우옌푹아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다. 만상이 자딘 정권과 관련해 출현하는 건 완황덕(阮黃德, Nguyễn Huỳnh Đức 응우옌후인득)을 통해서였다. 띠이썬에 사로잡혔던 그는 응예안에서 기회를 보아 탈출했는데 라오스 쪽으로 넘어가서 “락환으로 말미암아 만상을 지나(由樂丸過萬象)” 방콕으로 도망가 그곳에 망명했던 응우옌푹아인과 합류했다고 한다(『寔錄』1, 4:5b). 방콕에는 인타봉이 그의 아우(훗날의 짜오 아누)와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응우옌푹아인, 라마 1세, 인타봉에 더해 짜오 아누 사이에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응우옌푹아인과 인타봉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다음 기사는 흥미롭다. [인타봉이 응우옌푹아인을] “가서 뵈었고 마음에 그를 매우 공경하고 사모했다(往謁心甚敬慕之).”(『初集』, 33:28a)

자딘으로부터 북진에 박차를 가하던 1790년대 후반부터 응우옌푹아인의 군대는 만상을 거치는 우회로에 주목했다. 우회로 개척 임무가 완문서(阮文瑞, Nguyễn Văn Thoại 응우옌반토아이)에 맡겨졌다. 만상을 통해 산악지대로의 통로를 뚫을 것을 책임진다고 해서 그에게 부여된 직함은 상도장군(上道將軍)이었다. 당시(1798) 아인은 꾸이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문서에게 다음과 같이 작전의 개요를 지시했다고 ‘완문서열전’은 전한다. “군사를 운용하는 데서 속

12) 이 전말은 Kennon Breazeale, “The Lao-Tay Son Alliance, 1792 and 1793,” Mayoury Ngaosrivathana and Kennon Breazeale(ed.), *Breaking New Ground in Lao History, Essays on the Seventh to Twentieth Centuries* (Chiang Mai: Silk Worm Books, 2002), pp. 264-268.

이는 걸 피하지 않고 기회를 틈타 일을 해결한다. 너는 만상으로 가서 마땅히 소리 높여 말하라. 삼 군대와 내가 상도(上道)로 말미암아 응예안을 취할 것이다. 도적들로 하여금 감히 북쪽의 군대를 모두 모아 지원하지 못하게 하면 꾸이년의 외로운 성은 하루 만에 깨뜨릴 수 있다.”(『初集』, 27:9b)

완문서의 라오스 우회 작전은 띠에션에 대한 배후 공격인 동시에 띠에션 군대를 분산시키는 방편이기도 했다. 완문서는 ‘비엔쩐(Viên Chân 圓禎)’ 즉 비엔티안까지 갔다가 돌아왔다(『寔錄』1, 10:34; 11:7b; 12:6b). 그 경로는 캄보디아로부터 메콩의 수로를 이용한 것이었다.<sup>13)</sup> 이때가 1799년이니 다시 군대를 이끌고 만상으로 간 완문서는(1800) 그곳에서 만상 왕 인타봉의 군대와 합류해서 응예안을 공격했다(12:18a, 12:24b). 아마도 이는 과거 띠에션 군대가 만상으로 진출했던 그 길을 거꾸로 밟아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비엔티안-쩐난-꾸이협(Qúy Hợp 歸合) 루트이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태국의 역할이 컸다. 당시 태국의 라마 1세는 만상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건 베트남 측도 인정하던 바였다. 그래서 비엔티안이 지배하는 영역을 통해서 응예안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즉 상도(上道) 통행에는 태국의 양해가 필요했던 것 같다.

‘실록’은 이 대목에서 태국이 비엔티안에 절대적 종주권을 갖고 있었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해에 완문서는 보호진랍 완문한(阮文閑)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태국 왕으로부터 ‘상도통행허가서(通行上道關文)’를 받았다(『初集』, 27:9a). 이 증서를 갖고서야 완문서는 안전하게 만상 영역 내 필요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 증서

13) 이에 대해서는 Trần Hoàng Vũ, *Thoại Ngọc Hầu, qua Những Tài Liệu Mới*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 보는 瑞玉侯)(HCM City: Nxb. Tổng Hợp Thành Phố Hồ Chí Minh, 2017), pp. 154-156 참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가장 유효한 통행허가서이다. 내가 이를 가진 사람을 보내 가게 하니 지나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물자를 공급해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보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라.”(『寔錄』1, 10:34a)

라마 1세의 통행증이 코랏 지대를 통과할 때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메콩 강에서 선박 이동이 막히는 지점을 만나면 한동안 육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Trần Hoàng Vũ 2017: 155). 원문서의 열전을 보면 그의 일행이 지날 때 태국과 만상 경계 지역의 이민족 우두머리들이 모두 명령에 따랐다니 이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코랏이 베트남에서 ‘상도’로 여기는 곳일 리는 없다. 원문서 열전에는 1799년 비엔티안으로부터 응예안을 공격할 때 이르는 곳마다 쩐닌과 타인호아, 응예안 여러 만인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는 기록도 보인다(『初集』, 27:10a). 이런 이민족들이 사는 곳이 바로 상도였으며 특히 쩐닌 지역에서 라마 1세의 증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심지어 타인호아와 응예안의 ‘만인’도 쩐닌-비엔티안-방콕으로 이어지는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문서와 태국행에 동행했던 완문한은 보호진랍 직함을 갖고 있었다.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는 이미 대내외에 천명된 바였고 태국의 양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보호진랍 완문한과 상도장군 완문서의 차이는 이 당시 베트남이 행사하던 캄보디아와 만상에 대한 권리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801년 차단의 군대가 탕롱을 향해 북진할 때 다시 만상의 병사들이 응예안으로 움직였다. 이때 합동 작전을 수행한 베트남 군대의 지휘관은 유복상(劉福祥 Lư Phước Tường)이었다. 그의 열전에 의하면 만상은 4,000명의 병사를 동원해 응예안까지 진출해 떠이썬과 싸웠다고 한다(『寔錄』2, 27:13a). 그런데 이때 동원된 병사들이 ‘야

만인 군사 사천여 인(蠻兵四千餘人)’이라 표현되었다. 만상 왕이 장군 파아구포(破雅區哺)를 보내 거느리게 한 병사가 이들이었다는 기술을 감안한다면 유복상과 더불어 응예안으로 들어온 병력은 라오 병사들이라기보다는 만상이 지배하던 ‘상도’ 일대의 소수민족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국면을 놓고 볼 때 만상 병사들이 자딘 군대의 북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확인된다. 앞서 소개한 응우옌푹아인의 전략 즉 완문서에게 라오스로의 우회로를 개척하라는 지시 내용에는 배후 차단, 협공, 양동 등이 다 고려되었다. 수륙 병진으로 북진과 응예안으로 우회 기동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응우옌푹아인의 승리가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어도 빈딘과 푸쑤언을 확보하는 데서 만상의 공헌은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우회 기동이 성공했던 때를 전후해 베트남과 만상 사이 외교 사절의 왕래가 많아졌다. 만상이 사신을 보내 국서를 보냈다는가(『寔錄』1, 15:29b), 빈딘을 수복하고서는 태국과 만상에 소식을 전했다고(16:13a) 할 정도로 베트남의 외교에서 만상의 위치는 높아졌다. 응우옌푹아인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섬라, 진랍, 만상이 사신을 보내 축하했다는 건(18:17a) 만상의 존재를 놓고 볼 때 놀라운 변화다. 응우옌 왕조 수립과 더불어 만상은 베트남의 전통적 이웃국인 태국, 캄보디아와 병치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과거 쩐닌, 룡환, 혹은 락환 등과 함께 호명되던 위상과는 달랐다. 얼마 안 가 베트남은 새로 제정된 월남이란 국명을 섬라, 여송, 진랍, 만상에 통보했다(『寔錄』1, 23:13).<sup>14)</sup>

이 해(1804)에 만상의 왕 인타봉이 사망하고 그의 막내 동생 이누가 왕위를 계승했다.

14) 여송 즉 필리핀이 추가된 이유는 확실치 않다. 혹시 이즈음 여송의 요청으로 상당량의 쌀을 수출했던 일로 인해(『寔錄』1, 23:18) 양국의 교섭이 있었던 걸 기회로 베트남이란 국명을 사용했던 게 아닌가 한다.

### Ⅲ. 짜오 아누 지원

“만상 국장 소인(昭印, 인타봉)이 죽어 동생 소아노(昭阿弩)가 계승하고 알려왔다.”(『寔錄』1, 23:11b-12a) 이것이 ‘실록’ 중 짜오 아누의 초출이다. 그런데 만상국을 다루고 있는 ‘열전’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가룽 2년[1803]<sup>15)</sup> 소인이 삼으로부터 돌아오던 중 공교롭게도 병으로 사망했다. 삼인은 그[인타봉]의 동생 아노를 세워 국왕으로 삼았다. 아노가 [사절을 보내] 와서 슬픈 소식을 알렸다.”(『初集』, 33:30b)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태국이 만상 왕을 세웠다는 기록이다. 만상에 대한 종주권은 태국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대목인 것이다. 자롱 시대 베트남과 태국의 관계를 다룬 『린호례(隣好例)』(Hanoi: Viện Hán Nôm, A. 63.)를 보면 만상에 대한 태국의 종주권 인정은 더 구체적이다. 이 책에서는 태국이 아노를 봉하여 비엔티안의 수장으로 삼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봉(封)했다는 단어가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상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트남 조정은 두 명의 조정 관료를 보내 정중하게 부의했다(『初集』, 33:30b). 이 부의 사절은 짜오 아누의 등극을 인정하는 역할도 겸하면서 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보낸 사절에 답하는 짜오 아누의 선물은 화려하고 정중했다. 코끼리의 나라답게 수코끼리 2마리, 코뿔소 뿔(서각) 두 개, 육계 8백 근이 후어로 들어왔다. 이는 과거 그의 형이 후어로 보냈던 구리 징(銅鉦) 10개, 흰 서각 한 개(『寔錄』1, 13:11b) 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그런데 1805년 만상 사절이 사바나켓을 거쳐 팡찌로 들어와 뜻밖

15) 짜오 아누의 즉위 연대는 공식적으로 1805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베트남 측 기록은 혼란을 야기한다. 여기서는 즉위 연대가 1803년이지만, 앞의 ‘실록’에서는 이계 가룽 4년 즉 1804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의 제안을 전했다. 자기 나라는 예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3년 1공을<sup>16)</sup> 하며 울타리(藩)를 칭해왔는데 떠이썬 등쌀에 내몰려 삼에 귀부했지 만 이제 다시 삼 사람들의 학대가 심한데다가 베트남에 새로운 왕조 가 섰으니 과거의 조공례를 복원하겠다는 거였다. 이는 별 논란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자롱은 적어도 인타봉이 “짐의 이전 신하였 느니라(朕之先臣也).”고 하며 짜오 아누가 그 뒤를 이어 신하(“臣屬”)가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길 근거를 제시했다(『初集』, 33:31).

이는 불과 2년 사이에 생긴 커다란 변화였다. 자기가 신세를 졌던 태국의 신하를 자기 신하로 여기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참파와 캄보 디아가 베트남과의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번속이 된 것과는 달리 만 상은 주어지다시피 한 것이었던지라 관계의 추이가 캄보디아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예측해야 한다.

소아노라는 베트남 식 작명법은 짜오 아누에 대한 베트남 조정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도장을 뜻하는 ‘인’(인타봉의 이름)은 캄보디아 왕에게도 붙인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아노’ 같은 이름은 예외적 이다. 아노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공격적이고 무력적이다. ‘야’는 언덕, 구릉, 모퉁이, 물가 등 다양한 뜻이 있으니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노’는 쇠뇌이다. 이는 짜오 아누의 군사적 이미지가 반영된 이 름인 것이다. 그는 1778-1779년 사이에 태국 군대의 한 지휘관이기도 했고 태국이 버마, 떠이썬과 충돌했을 때 군공을 세운 바가 있 다.<sup>17)</sup> 민망 황제가 만상의 사절을 맞아 아노가 좋아하는 걸 물었을 때 군사용 북 즉 전고(戰鼓)라는 대답을 듣고 전고 두 개를 선물한 적도 있었다(『初集』, 33:32b). 군사적 이미지가 아노 재위기 국내외

16) 어느 때를 지칭하는 건지, 북조와 남조 중 어디로 갔다는 건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17) Mayoury-Pheuiphanh Ngaosyvathn, *Paths to Conflagration, Fifty Years of Diplomacy and Warfare in Laos, Thailand, and Vietnam, 1778-1828* (SEAP, Cornell University, 1998), pp. 68, 77.

관계의 성격을 지배했다.

1805년부터 베트남과 만상 사이의 외교 관계는 공식화되고 정례화 되었다. 베트남 입장에서 말하자면 만상의 ‘조공례’가 정해졌던 것인데, 3년 1공을 원칙으로 하고 음력 12월에 수도 후에까지 온다는 내용이었다. 공물품은 수코끼리 2마리, 코뿔소 뿔 두 개, 계피가 다섯 근이었다. 정사와 부사가 각 한 명, 통역인이 두 명, 수행 인원을 30명으로 정했다. 사절단에는 “추장(酋長)” 두 명이 더 있는데 만상의 판도 내에 있는 소국의 우두머리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사절은 응예안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정해졌다.

설사 조공품을 바치러 온다고 해도 수도까지 오게 하는 건 일종의 특권이였다. 만상 이외에도 라오스 쪽에서 온 사절들은 여럿 있었다. 1806년에 공물을 바쳤다(遣使來貢)고 기록된 나라만 해도 량망(良芒), 락환(樂丸), 파포(頗浦), 람마(藍麻), 라거(羅車) 등이 있었다(『寔錄』1, 31:2b). 루앙프라방에서도 사절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응예안 입구에서 머물러 선물을 전달하고 갔을 뿐이었지 수도에는 오지 못했다. 짜오 아누가 처음 공물을 보냈던 1805년, 그러니까 양국의 조공례가 정해지기 전에는 설사 조정에서 예부의 관리들로 하여금 한 달 간 후대했다고 했지만 만상 사절은 캄로에만 머물렀다 돌아갔을 뿐이었다. 1817년 락환과 삼동만(三洞蠻)도 선물을 들고 응예안으로 찾아왔으나 수도 후어로 들어가는 건 허락되지 않았다(55:8a).

짜오 아누는 3년 1공례를 충실히 지켜 가며 공물 사절을 보냈다. 1811년부터 1814년 사이엔 한 번 더 보내기까지 했으며(『寔錄』1, 42:6b; 43:20; 49:14a) 이후 1824년까지 3년에 한 번씩 만상은 조공을 거르지 않았다(56:18a; 『寔錄』2, 1:19a; 13:12; 25:12).

그런데 이 3년 뒤 만상에서 조공 사절이 와야 할 시점에 문제가 발생했다. 조공 사절 대신 후에에 온 건 만상이 태국과 싸우다 패하



자 삼동으로 피신해 와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때가 1827년 음력 4월이었다. 베트남 조정에서 진단하던 전쟁 원인은 다소의 외다. 내용의 진위는 차치하고 이런 조사까지 한 건 베트남이 그만큼 만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정확하지는 않다. 후에 조정이 이해한 바대로의 갈등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본디 국장 아노의 딸이 삼 왕에게 시집가 삼마알(森麻諷)을 낳았다. 삼 왕이 다시 자기 나라 사람과 결혼하여 촌가파(村木+哥破)를 낳았다. [이 왕자가] 자라서 적자로부터 빼앗으려고 꾸며 마침내 삼마알을 죽였는데 삼 왕이 말리지 않았다. 아노는 이로써 삼을 원망하여 거병해 고락성(古落城)을 공격해서 빼앗았고 삼 군인 500여 명을 죽였다.(『初集』, 33:34b-35a)

이 기사 바로 뒤에는 “일설에”라는 단서를 달고 태국 왕과 아노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긴장 관계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기도 했다. 짜오 아누의 세력권 안에 있던 한 무양 지배자를 태국 왕이 자기의 신하로 임명하자 그에 대한 짜오 아누의 반발로 인해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두 개의 원인 다 모호하지만 만상 문제를 이해하는 베트남의 입장이 각 원인에 모두 담겨 있어서 흥미롭다. 우선 두 왕실 사이의 혼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라오스 측의 연구서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단지 만상의 선대 왕 인타봉의 딸이 라마 1세(1782-1809)의 여인이 되었다는 말은 있다. 낭 통숙(Nang Thongsuk)이라는 이 여성은 짜오 아누의 딸이 아니라 조카딸이었다. 그녀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라마 2세(1809-1824)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Mayoury 1998: 68). 짜오 아누와 힘을 겨루던 사람은 라마 3세(1824-1851)였다. 이 사람의 정적이 배다른 동생이자 라마 2세의 적자인 몽콧(훗날

의 라마 4세)이었다. 몽콧과 결혼한 여성이 짜오 아누의 사촌 누이였음도 주목된다(p. 137). 아마도 이런 혼인 관계가 굴절이 되어 베트남에 전해졌던 것 같다.

만상과 베트남 왕실 사이에 혼인 관계가 없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베트남이 이해하던 태국-만상 관계는 베트남-만상 관계보다 훨씬 가까웠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베트남의 전통적 조공국으로 인식되던 참파나 캄보디아에 비해서 만상은 먼 나라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파와 베트남 사이에서는 혼인이 있었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에서도 그랬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두 번째 원인으로 소개된 건 무앙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만상과 태국 사이의 다툼이었다. ‘일설’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원인이 사실에 더 부합했다. 태국의 양해 하에 참파쪽은 짜오 아누의 아들 짜오 요에게 주어졌고<sup>18)</sup> 루앙프라방을 제압하는 것도 짜오 아누의 꿈이었다. 특히 메콩 건너 코랏 평원 지대 회복은 짜오 아누의 강한 염원이었다. 때문에 이 지역의 라오인 지배권을 놓고 발생하던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다.

태국과의 싸움에서 패한 짜오 아누가 도망친 곳은 베트남과 인접한 삼동이었다. 삼동은 사서에서 종종 락환과 병치되던 곳이다.

우선 락환을 보자. 쩐반꾸이는 락환을 현재 메콩 서쪽 편에 있는 태국 도시 나콘 파놈(Nakhon Phanom)이라고 비정한 바 있다.<sup>19)</sup>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록’은 태국 병사들이 메콩을 건너 락

18) Mayoury(1998), pp. 69, 78. 베트남 측에서는 1827년 짜오 아누의 아들 소파특(昭巴忒)이 참파쪽을 공격하자 이곳의 우두머리가 200여 인을 데리고 민망에게 귀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寔錄』2, 45:9b).

19) 쩐반꾸이는 이곳을 Lac Hoan이라 읽고 현재 메콩 변에 있는 태국 도시 나콘 파놈(Nakhon Phanom)이라고 비정한 바 있다. Tran Van Quy, “The Quy Hop Archive: Vietnamese-Lao Relations Reflected in Border-Post Documents Dating from 1619 to 1880, Mayoury Ngaosrivathana and Kennon Breazeale(ed.), *Breaking New Ground in Lao History, Essays on the Seventh to Twentieth Centuries* (Chiang Mai: Silksworm Books, 2002), p. 244.

환의 경계에 주둔했다고 하니(『寔錄』2, 46:16) 락환은 메콩 이동일 것이다. 『명명정요(明命政要)』<sup>20)</sup>와 『대남회전사례(大南會典事例)』 ‘유원’ 조에서 공히 락환은 락변(樂邊)이라고 한 기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락환은 베트남 입장에서 볼 때 전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의 한 무양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만상은 애뢰(평찌)와 륝환(락환) 사이에 있다.”는 기사(『前編』, 10:31b), 완황덕이 “락환으로부터 만상을 지나(由樂丸過萬象)”(『寔錄』1, 4:5b) 방콕으로 도주했다는 기사를 고려할 때 락환은 비엔티안 동북쪽 어딘가에 있던 게 틀림없다. 메콩을 건넌 태국 군대 지휘관이 먼저 만상을 친 후에 락환과 응예안을 취하겠다고 한 걸 고려할 때(『寔錄』2, 46:3b) 락환과 응예안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락환과 삼동이 1814, 1823년 사절을 보내 내공했다는 기사를(『寔錄』1, 55:8b; 『寔錄』2, 20:10a) 참작하자. 그렇다면 삼동은 베트남 쪽으로 바짝 붙은 곳이고 락환은 삼동 보다는 조금 멀되 베트남에 가까운 곳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대남회전사례』 ‘유원’ 조에 의하면 베트남을 찾아와 공물을 바치던 락환에게 전 30관, 삼동에게는 전 20관을 여비로 지급했다. 30과 20이란 숫자는 베트남으로부터 원근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삼동은 어디였을까? 베트남 응예안의 무양센이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 이곳은 현재 응예안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지대의 마지막 소읍으로서 국경 관문에서 20km 떨어진 곳이다. 무양센과 국경 사이에는 험준한 산악 사이로 난 길이 있으며 그 주변에는 타이 계열의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마을 또는 국기를 뜻하는 무양이 동(峒)으로, 센이 삼(三)으로 번역된 게 아닐까?<sup>21)</sup> 이곳에서 짜오 아

20) 『明命政要』(Saigon: Bộ Văn Hóa Giáo Dục và Thanh Niên, 1974)(柔遠), 25:1a.

21) 삼동은 찌우바동(Chau Ba Dong)으로 표기되기도 한다(Tran Van Quy 2002: 251).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행정구라는 뜻이다. 한자로 풀어보면 삼(Ba, 바는 베트남어로 셋이라는 뜻) 동(峒 Dong) 주(州 Chau)라는 뜻이다.

누는 민망 황제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寔錄』2, 45:33b). 『대남 회전사례』 ‘유원’ 조 명명 9년의 기사에 따르면, 삼동을 내지화할 때 삼동을 구성하는 심원(深源), 연산(燕), 몽산(夢山)의 각 동은 현으로, 삼동은 부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만 해도 민망과 조정 대신에게 만상을 돕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행동은 즉각적이었다. 무장 판반투이(Phan Văn Thúy, 潘文翠)가 경력변무대신(經略邊務大臣)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응예안에 파견되었다. 그가 이끈 건 코끼리 30마리와 함께 하는 수도의 병사 2,000명이었다(『寔錄』2, 45:34b). 짜오 아누의 문제는 즉각 사이공의 가정성 총진관 레반주엣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베트남은 ‘보호진랍’이라는 직책을 두어 캄보디아를 통제하고 있었다. 보호진랍은 이웃국 라오스와 태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호진랍의 상위 부서가 가정성총진이었다. 그러니 당시 가정성 총진관 레반주엣은 라오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만상은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으며 우리에게 제후였습니다(萬象久修職貢爲我藩輔). 궁해져서 애절하게 의리를 구걸하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황차 우리와 섬라의 관계는 명목은 린교(隣交)이나 실은 적국이니 오늘 우호를 통해도 다른 날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만상이 만약 삼에게 병합되면 우리와 삼은 땅을 접하게 될 것이니 신(臣)은 평상이 기울고 잠결에 소리가 요란해(榻側睡聲) 배개를 높이하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寔錄』2, 46:4b)

이는 조정 대신 사이에서 나온 말과 거의 유사하다. 응예안으로 간 경력대신 판반투이의 군대는 꾸이협에 진주했다가 삼동으로 향했다. 일시 삼동을 떠나 다른 곳(召曠伴)으로 피신한 바 있던 짜오 아누는 베트남 군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삼동으로 돌아왔다

(『寔錄』2, 46:16).

이때 태국 군대가 메콩 강을 건너서 락환의 경계에 주둔하자 소식을 들은 민망이 “락환은 내게 공물을 바치는 야만인들(樂丸乃我貢蠻)”이라 하며 종주권을 주장하는 모습이 보인다(Ibid). 민망 즉위 직후 락환이 베트남에 공물을 보냈다는 기록은 있다(1:19a). 여기에 선대 자롱 때 있었던 인연을 보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얼마 후 민망 황제는 삼동에 있던 짜오 아누를 다시 응예안으로 불러 들여 머물게 했다.<sup>22)</sup>



22) 『寔錄』2, 47:3b. 그런데 짜오 아누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지는 않다.

이즈음 민망은 라오스 쪽의 지리적 환경이 궁금했던 것 같다. 1827년 음력 9월, 그는 두 길로 나누어 탐사대를 보내 만상으로 가는 길을 조사하게 했다. 그 하나는 꾸이협을 통해서 락환으로 가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랑디엔(Lang Diên 朗田)을 통해 찐닌으로 나가는 길이였다. 민망 황제가 보낸 관리들은 도착지 즉 락환과 찐닌으로부터 비엔티안으로 가면서 산천 형세, 거리, 주거, 가옥의 분포 등을 자세히 그려 보고할 임무가 주어졌다(『寔錄』2, 48:8b-9a).

꾸이협, 락환, 랑디엔, 찐닌 이 네 개의 지명은 하나같이 현재로서는 확실한 비정이 불가능하다. 찐닌이 현재의 썸누어(화판 주)인지 폰사반(씨엥코양 주)인지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르고 꾸이협은 현재 지도상에 존재하지만 19세기의 꾸이협은 이곳이 아니라 7번 국도상의 끈꾸옹(Con Cúông)이라는 의견도 있다.<sup>23)</sup>

그런데 찐반꾸이의 주장은 꾸이협이 현재의 하띤 성 호영캐(Huong Khe) 부근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Tran Van Quy 2002: 239-256) 만약 그의 주장대로 락환이 나콘 파놈이고 찐닌이 씨엥코양이라면 이 탐사대의 행로와 대략 맞아떨어진다. 즉 민망의 사절 중 한 무리는 꾸이협을 통해 타객(캄무양 주의 주도로서 강 건너가 나콘 파놈)으로 갔다가 비엔티안으로 복진하고, 또 한 무리는 현재 베트남의 7번국도 방향으로 끈꾸옹과 무양셴을 지나 폰사반으로 갔다가 비엔티안으로 남하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완황덕이 응예안으로부터 락환으로 갔다가 만상을 들러 방콕으로 갔다는 기사와도 호응한다. 하띤 성은 응예안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1831년이니 이 시절 호영캐는 응예안 성에 속했다.

하지만 찐반꾸이의 주장은 뒤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과 조화되지 못한다. 만상에 개입하려 출동한 민망의 군대는 꾸이협이 원 기지였

23) Nguyễn Quang Ngọc(베트남 인문사회대 사학과 교수)과의 대담. 2018년 1월 28일, 하노이.

고 거기서 쩌닌을 자주 왕래했다. 쩌반꾸이의 꾸이협은 그가 쩌닌이라고 비정한 씨엥코양 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타캅으로부터 북쪽으로 빠짱, 비엔티안, 폰사반이 차례로 있다. 쩌반꾸이의 주장대로라면 민망의 군대가 꾸이협에서 출발해 쩌닌으로 간 후 거기서 비엔티안으로 갔다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여로이다. 쩌반꾸이의 꾸이협으로부터 씨엥코양까지 가는 도로도 없다. 오히려 그의 꾸이협은 락환에 가깝다. 지명 비정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겠다. 베트남에게 만상은 그토록 알기 어려운 나라였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1828년 음력 4월 짜오 아누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군사 작전이 시작되었다. 3,000여 명의 군사와 24필의 코끼리가 만상을 향했다(『寔錄』1, 18:17a). 동원된 병력은 이전에 비해 1,000명이 늘어났다. 그런데 코끼리는 6필이 줄었다. 전투력을 증강시킨다면 코끼리 숫자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는가? 사람과 코끼리 중 어느 게 더 직접적으로 전투력과 관련될까? 코끼리다. 내가 보기에 이 숫자는 민망의 태도 변화를 반영한다. 전투력 증강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사람이 할 일이란 무엇이였을까에 대해서도 곧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이 군대의 지휘관은 여전히 판반투이었으며 응우옌반쑤언(Nguyễn Văn Xuân 阮文春)이 그를 보좌했다.

민망의 행동은 민첩했다.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호 사절이 태국으로 파견되었다(『寔錄』2, 51:25a). 이 사절이 전할 말에도 베트남 군대의 기동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민망의 군대는 비엔티안까지 가지 않고 쩌닌에 머물렀다. 그 이유를 ‘실록’은 짜오 아누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돌리고 있다. 짜오 아누가 말하기를, 베트남의 군대가 경계 지역에 머물면서 성원을 해준다면 자기가 사람을 모아 인솔해서 직접 비엔티안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태국군과 충돌이 생긴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는 다짐이 있었다는 것이다(『寔錄』2, 51:23b). 그렇게 해서 베트남과 만상 경계 지역으로 선택된 곳이 전년(前年)의 락디엔(Lạc Diên 樂田)이라는 곳이었다(25b). 베트남 군대가 주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음력 5월 전년이 7개 현으로 나뉘고 지현과 현승이 두어졌다는 기사가 나온다(52:2a). 베트남의 병사, 죄수로 운영되는 둔전이 전년에 설치되었다(7a). 판반투이가 짜오 아누 지원 명목으로 이끌고 있던 인력의 용도는 짜오 노이가 지배하던 전년 땅을 개척하고 동화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민망이 만상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는 건 레반주엣의 태도와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다. 레반주엣은 태국을 두고 린교의 대상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 여겼다. 캄보디아와 더불어 만상 역시 레반주엣에게는 베트남의 번속국이었다. 이에 반해 민망은 적어도 만상에 베트남의 배타적 종주권을 행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삼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웃이 되고 만상은 양국의 신복이다(暹人於我爲隣而萬象則兩國之臣僕也).”(『寔錄』2, 51:23b) 내가 보기에 이는 대단히 현실적인 태도로서 동남아시아의 다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sup>24)</sup> 민망 황제가 1824년 라마 2세의 부음을 듣고 3일 동안 조정의 조회를 그치는(三日輟朝) 극존의 예를 취한 건(『明命政要』, 25:11b) 이런 태도의 반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판반투이의 본대는 락디엔에 주둔했다. 짜오 아누는 비엔티안을 향했다. 이때 그를 호송했던 베트남 병력 규모는 해대(該隊) 응우옌 쩡다이(Nguyễn Trung Đài 阮仲台)가 지휘하던 두 개 대(隊)였다(『寔錄』2, 52:6a). 한 개 대가 30-50명으로 구성된 소대 단위라면 짜오 아누를 호송한 베트남 군대의 규모는 너무 약소했다. 과거 레반주엣

24) 최병욱, 『19세기 전반기 베트남 제국(帝國)의 국제질서』(『동남아시아연구』21권 1호, 2011), p. 256



이 캄보디아 왕 양편을 호위해 복귀시킬 때 직접 1만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었던 사례와 비교하자면 이들 수십 명의 베트남 호송대는 전투를 염두에 둔 병력이었다고 볼 수 없다.

비엔티안으로 돌아온 짜오 아누의 입장에서는 도박이 필요했던 것 같다. 쩌んに 베트남 군사 3,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더 움직일 기미는 없어 보였다. 비엔티안에는 태국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 자기와 함께 온 베트남 군인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쩌んの 베트남 주력군도 익숙하지 않은 기후와 말라리아로 너무 고생이 심하다며 일단 귀국했다(『寔錄』2, 52:13b; 21b; 22-23). 짜오 아누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언제 태국으로 끌려갈지 모를 형편이었다. 민망 황제의 외교적 노력을 신뢰하고 ‘양국의 신복’으로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미 태국에 도전했던 짜오 아누가 이전의 외교 관계를 회복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역시 믿어볼 만한 세력으로 남는 건 베트남뿐인데, 베트남은 짜오 아누가 보기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대신 민망은 쩌んに 너무 적극적이었다. 짜오 아누의 무력 도발은 이런 형편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 아니었을까? 짜오 아누는 태국군을 공격해 싸움을 일으켰고 응예안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망은 거절했다. 베트남 군대가 쩌ん에서 머물기만 해준다면 혼자서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던 짜오 아누의 말이 거짓이었는지, 그런 말을 짜오 아누가 했다는 ‘실록’의 기록이 왜곡이 있는지, 아니면 통역이나 번역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문제였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짜오 아누의 선택은 민망에 의해 “가볍고 조급하며 망령된 움직임(輕燥妄動)”으로 비난당했다(『寔錄』2, 54:31a). ‘열전’에는 짜오 아누 문제로 인해 태국과 충돌하지 않겠다는 민망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만상을 보호하고 태국과는 일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레반주엣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

아노가 가볍고 조급하며 망령된 행위(輕燥妄爲)로 인해 삼에게 패배했는데 [그] 욕스러움으로 원망을 품는다면 삼 국이 참을 수 있겠는가? 훗날 [삼이] 군대를 더하면 무슨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겠는가? 다시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릇 조정이 만상의 일을 처리하는 바는 어짐을 지극히 하고 옳음을 다함(仁之至義之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아노가 이처럼 거동하는 건 짐을 배반함이 큰 것이다. 만약 다시 오면 거절하고 들이지 않아야 한다.(『初集』, 33:41b-42a)

이 뒤 민망의 태도가 묘했다. 그는 해대 판반통(Phan Văn Thông 潘文統) 등을 보내 아노를 꾸짖었다. 그리고 아노로 하여금 태국에 사과하고 빼앗은 무기류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그런데 이 뜻을 전하러 간 판반통 일행 50여 명이 태국 군대에 붙들렸다. 소식을 들은 민망의 투덜거림이 대단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初集』, 33:42). 그의 눈길은 여전히 쩐년에만 머물러 있었다.

두 달 뒤 태국은 천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 짜오 아누를 공격했다. 아누는 베트남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짜오 아누는 쩐년으로 도망쳤다. 쩐년의 지배자인 짜오 노이는 사람을 시켜 그를 붙잡아 태국군에 넘겼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寔錄』2, 62:8b). 당시 짜오 노이는 후에 조정으로부터 방어사 직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얼마 안 가 민망은 호부 낭중(郎中) 바익쑤언응우옌(Bach Xuân Nguyễn 白春元)을 정사로 삼아 방콕에 사절을 보내 양국의 우호를 다졌다(57:21b). 이는 이미 1829년의 일로서, 잡혀간 짜오 아누가 방콕에서 사망한 뒤였다. 민망이 짜오 아누를 위해 한 일이라고는 쩐년으로부터 응예안으로 도망친 짜오 아누의 두 아들 소초(紹初)와 소천(紹淺)을 보호한 일뿐이었다(57:3). 이들의 거주지는 꾸이협으로 정해졌다(125:26b).

#### IV. 쩌닌으로의 진출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짜오 아누가 1827년 베트남에 지원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 만상 지원에 몰두하던 민망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혼든 사건이 발생했다. 쩌닌 문제였다. 짜오 아누가 삼동으로 피신하고 조정의 정예병 2,000명이 동원되어 짜오 아누를 안심시키고 있었을 때 쩌닌의 수장 짜오 노이가 후에 조정에 귀부했다. 그때가 1827년 음력 6월이었으니 후에 조정에서 보자면 비엔티안의 짜오 아누와 쩌닌의 짜오 노이가 두 달 사이에 베트남 황제의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이다.

짜오 노이의 귀부는 자롱 시대에도 한 번 있었다. 응우옌 왕조 수립 이후 쩌닌은 자롱 황제에게 만상과 베트남 사이의 완충 지대로 이해되었다. 그 증거는 1802년 만상의 사절이 왔을 때 보인다. 자롱 황제는 만상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가운데 쩌닌으로써 베트남과 만상 사이의 경계를 삼는다는(以鎮寧之地界之) 결정을 알렸다(『初集』, 33:30a). 그런데 그해 음력 12월 쩌닌의 지배자 짜오 노이가 내부하기를 구했다. 짜오 노이의 부친이 사망하자 이제 막 만상의 왕으로 등극한 짜오 아누가 자기의 종형을 쩌닌 지배자로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노이는 6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1년 남짓 후에(1804) 짜오 아누는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고 짜오 노이의 계승을 인정하기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다.

그 뒤 짜오 노이는 만상의 봉국이로써 베트남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민망 황제에 귀부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유는 충분했다. 만상이 위태해지자 만상의 라이벌인 루앙프라방 왕국이 만상과 한편이었던 쩌닌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만상이라는 주인을 잃은 쩌닌은 그래서 베트남을 보호자로 선택했다(『寔錄』2, 46:22b). 민망으로 보자면 이걸 만상 사태가 초래한

뜻밖의 선물이었다. 황제의 기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쩨닌은 본래 우리의 옛 강토였다. 이전에 선대 황제께서 만상과 경계를 삼으면서 작은 것은 계산하지 않았다. 지금 아노가 달아나니 추장[노이]은 의탁할 데가 없어 토지를 갖고 다시 돌아와 바쳤다. 이야말로 우리는 화살 한 개도 들이지 않고 먼 데 사람들의 정성을 먼저 얻었다. 경략하는 데 명분이 있도다.(『寔錄』2, 46:24a)

민망의 해석은 현실화 되어야 했다. 이 사건은 “쩨닌의 추장 짜오 노이가 토지와 백성 등록 대장을 헌납하니 장정의 수가 3천, 경작지가 28개였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답해서 민망은 짜오 노이를 찼닌 부(府) 방어사(防禦使)로 임명했고 함께 기부한 7현의 지도자들에게 토지현(土知縣), 토현승(土縣丞)의 직책을 부여했다. 각 현의 이름은 광(廣), 련(蓮), ?(米+欠), 흠(欽), 강(康), 길(吉), 목(木)이었다(『寔錄』2, 47:32a; 52:2). 현 이름에 외자를 쓰는 건 독특한 작명법이기는 하되 한자와 쓰놈을 사용해 판적(版籍)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1830년대 전국적으로 진행될 이민족 동화 정책의 초기 시험 같아 보이기도 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찼닌이 원래 베트남 것이었다는 인식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레 왕조 시절 타인퐁(Thánh Tông 聖宗, 1460-1497)이 란쌍을 공격해 분만(盆蠻)의 땅을 얻어 그곳에 진녕부(鎭寧府)를 두었다는 기억에 근거한다.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에 의하면 147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진녕(쩨닌) 지배가 지속적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이름 붙인 땅은 베트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국의 고토로 남게 되었다. 설사 타인퐁 사후 베트남이 이곳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는 하나 그곳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찾아야 할 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외에 민망에게는 쩐닌을 직접 지배해야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가 기억해 낸 건 과거 쩐닌이 30여 년 동안 레주이멧(Lê Duy Mật 黎維密)<sup>25)</sup>의 근거지였다는 사실이다(『初集』, 33:37). 즉 베트남 중앙 조정에 반기를 든 자들의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서 쩐닌에 대한 직접 지배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사실 민망의 조상인 응우옌 킴(阮淦) 역시 레 왕조 부흥 운동을 지도할 때 피신했던 곳이 ‘애뢰’라고 했으니 설사 이 도피처와 쩐닌이 같지 않더라도 장산 산맥 너머 라오스 지역은 베트남 황제가 볼 때 반란군의 잠재적 근거지였다고 할 수 있다.

쩐닌을 다시 베트남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가고 이주가 장려되었다. 이주민 중에는 범죄자들도 포함되는 건 베트남 역사 속의 관행이었다. 1828년에 무뢰배, 잡범들을 쩐닌에 보냈다는 건 앞서 말한 대로이다. 민망에게 쩐닌은 새로 붙은 영토였다. 황제와 조정 대신 입에서는 “쩐닌 새 강토(鎮寧新疆)”(『寔錄』2, 52:24a; 63:32b)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된다.

쩐닌이 귀부한 건 만상 문제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민망 입장에서 볼 때 만상과 쩐닌은 별개의 두 개 나라나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다. 한 나라는 전쟁에 패해서 왕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고 또 한 나라는 주변국에 시달리다가 내속을 요청해 왔다. 그래서 만상과 쩐닌은 한 가지 문제면서 두 개의 문제이기도 했다. 만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반투이가 나섰다면 쩐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책임자는 응우옌반쭈언이었다(『寔錄』2, 46:22b). 락환 변계에 까지 들어온 태국 병사들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삼동까지 진출했던 판반투이의 병사들이 꾸이협으로 철수했다. 동시에 쩐닌에 주둔했던 응우옌반쭈언의 병사들도 철수했다(47:1b).

그런데 1828년 짜오 아누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2,000명의 베트남

25) 레 황실의 일족으로서 쩐씨 타도 운동을 지도했다.

병사들이 쩐んに 머물렀을 때 쩐ん 7개의 현 재정비가 이루어지고(『寔錄』2, 52:2a) 쩐ん에는 둔전이 설치되었다(7a). 적어도 이 시기 쩐ん은 응예안에서 만상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으며 민망은 쩐ん을 내지화 하여 만상을 통제하는 전초 기지로 삼으려 했었음이 틀림없다.

이쯤에서 쩐ん의 위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혹 레 타인똥 시대의 쩐ん과 민망 시기 쩐ん이 달랐던 게 아닐까? 레 타인똥은 본만을 정복해 쩐ん 부를 두었고 쩐ん 부가 된 본만은 루앙프라방에 근거한 란쌍과 연합해 베트남과 싸웠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의 군대는 쩐ん을 지나 루앙프라방까지 진격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쩐ん의 위치는 타인호아를 통해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후아판 방향의 그 어느 지역이 아니었나 싶고 민망 황제 때는 응예안을 지나 무앙센을 거쳐 도달하던 씨앵코앙 쪽이 아니었을까 한다. 적어도 민망 시기는 판반투이의 기동로를 볼 때 후아판이 쩐ん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sup>26)</sup>

61세의 짜오 아누가 쇄사슬에 묶여 철창에 갇힌 채 방콕으로 끌려가 고문당하다가 죽은 뒤<sup>27)</sup> 쩐ん의 방어사 짜오 노이는 후에로 끌려가 죽었다. 새로 방어사로 임명된 베트남 장군 따짱끄(Tạ Quang Cự 謝光巨)가 짜오 노이를 붙잡아 수도로 보냈기 때문이었다(『寔錄』2, 63:18a). 거기서 잘린 짜오 노이의 목은 다시 쩐ん으로 보내져 높은 장대에 매달렸다. 짜오 노이와 함께 붙들려온 그의 처자 15명은 꾸이협 요새에 억류되었다(63:31a-32a).

짜오 노이는 왜 죽어야 했을까? 후에 조정이 내세운 노이의 죄는

26) 실체는 분명치 않으나 라오스 역사에서 푸안(Phuan) 왕국이 언급된다. 베트남이 언급하는 ‘분만’ 중 ‘盆’은 그 발음이 ‘분’으로서 혹 이 푸안을 말하는 게 아닌가 한다. 푸안이 전성기에 현재 시앵코앙과 후아판에 걸친 정치체였다면 쩐ん은 시대에 따라 이 두 지역을 다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었다.

27) 짜오 아누의 최후는 당시 방콕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youry and Pheuiphanh(1998), pp. 23-26. 목격자 중에는 브뤼기에르(Bruguière) 신부와 구츠라프(Gutzlaff) 선교사도 언급되는데, 전자는 파리외방선교회 소속으로서 최초의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인물이며 후자는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문 번역본 성경을 조선에 전했다.

두 가지였다(『寔錄』2, 62:8b). 첫째, 짜오 아누가 태국 군대에 패해 도망쳐오자 그를 붙잡아 태국에 넘겼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대로 형식 논리로 볼 때 짜오 아누가 찐닌으로 온 건 베트남으로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짜오 아누의 문제는 민망에게 보고되어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이 방어사 짜오 노이는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짜오 노이의 죄상을 언급한 바로 그 부분에서 ‘실록’은 그런 짜오 노이를 민망 황제가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이걸 관용이 아니라 추인이었다고밖에 해석될 도리가 없다. 짜오 노이가 민망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아니었을까? 세공을 바치지 않고 소식도 없었다는 게 두 번째 죄목이었다. 이때가 1829년 겨울이었으니 짜오 아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니 이도 짜오 노이의 목이 잘려 장대에 걸리기에 족한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짜오 노이와 그의 가족이 제거됨으로써 민망의 찐닌 내지화에서 걸림돌은 다 사라진 것 같았다. 원래 1개 부(찐닌 부) 7현으로 개편된 바 있던 찐닌은 짜오 노이 사후 6부가 되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녕(鎭寧), 진정(鎭靜), 진정(鎭定), 진변(鎭邊), 진만(鎭蠻), 락변(樂邊).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는 지역은 종종 “찐닌 새 영토(鎭寧新疆)”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을 이해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19세기 찐닌의 위치조차 혼동이 온다. 원래 찐닌이 1부 7현이었다. 이는 마치 삼동이 1부가 되고 그 아래 3개의 각 동이 3현으로 개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였다. 그런데 찐닌이 6부가 되었다는 건 찐닌의 범주가 갑자기 확대되었음을 의미했다. 원래 짜오 노이가 지배하던 찐닌만이 아니라 짜오 노이를 중심으로 해서 느슨하게 펼쳐진 연계망 속의 ‘부락’들을 후에 조정은 전부 찐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원래의 찐닌은 확대된 찐닌 중 하나가 되는 동시에 6부의 중심이자 6부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도 했다. 앞서 잠시

살폈듯, 진정(鎮靜)은 원래 삼동이었고 락변은 락호안이었다. 쩐닌은 원래 씨앙 코앙을 중심으로 한 곳이었다. 나머지 진정(鎮定), 진변(鎮邊), 진만(鎮蠻)은 베트남과 직접 접촉을 가졌던 라오의 무앙 중에서는 대응되는 곳을 찾기 힘들다. 이들은 쩐닌에 대한 지배권을 전제로 해서 베트남 황제가 자기 관도로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무앙들이라고 생각된다.<sup>28)</sup> 쩐닌은 응예안 관할이었다. 그래서 쩐닌은 응예안 성 관할 아래의 진녕부로 지칭되었다. 그러다가 쩐닌, 진정(鎮定), 진변이 함께 세 개의 부로 연명되는 걸로 보아(60:26b) 진정, 진변 두 개의 부로 불리는 지역이 ‘신강’에 먼저 편입되었고, 이후 진정(鎮靖), 진만, 락변이 베트남의 새 식구가 되었던 것 같다. 진정(鎮靖), 락변 두 개 부의 세액을 정할 때 쩐닌의 진정, 진변과 함께 한다(71:20b)는 기사는 그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후 약 3년 동안 쩐닌 지역은 민망이 바란 대로 평온하게 내지화의 길을 밟았던 것 같다. 순탄한 여정 속에서 1832년에는 이곳의 지도자들에게 대규모로 한자식 성씨와 이름이 하사되었다. 예를 들어 쩐닌 부 방어동지(防禦同知) 소황(召況)은 방어사가 되었고 성으로 교(嶠)를, 이름으로 황(旣)을 베트남 황제로부터 하사받았다. 같은 시기 방어동지로 임명된 인물은 흠(欽)을 성씨로 받아 흠궐(欽關)이 되었다. 이후 쩐닌의 지현과 부 지현에게 주어진 성씨와 이름의 숫자가 각각 40이 넘었다. 성씨로는 산(山), 도(道), 금(琴), 암(巖) 같은 일반 명사도 있지만 다(多), 청(靑), 고(古), 감(甘) 같은 형용사도 있었고, 모(慕), 정(定), 성(成) 등 동사도 있었다(『寔錄』2, 78:13b-14a).

그러던 중 쩐닌 ‘신강’이 빼앗겨린다는 걸 암시하는 기사가 출현했다. “락변부 선무동지가 태국으로 귀부했다.”(『寔錄』2, 94:21)는 것이

28) 민망은 1829년 호부가 작성한 인구 및 강역 관련 보고를 열람하면서 쩐닌이 내속했고 남장이 천리 땅을 헌납해서 여섯 개 부 20개 현의 신강을 설치했다고 했다(59:25b-26a) 남장의 현지 증거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짜오노이 영향력 밖의 라오 땅도 쩐닌 신강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곧이어 쩐닌 방어사 황, 방어동지 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寔錄』 2, 119:5b) 기사가 나온다. 이때가 1834년이였다. 남부베트남에서는 레반코이의 반란이 일어난 지(1833) 얼마 되지 않았고 북부 사람들은 까오방을 중심으로 하는 농족의 반란으로 불안할 때였다. 이때부터 쩐닌에서의 소요는 계속되었다. 완전하게 진압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쩐닌이 완전히 베트남과 결별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 같다. 민망의 병사들에게 쩐닌은 늘 사람도 기후도 위협적인 곳이었다. 말라리아는 물론이고 온갖 풍토병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쩐닌의 ‘남장(嵐瘴)’은 그들에게 극복하기 힘든 장애였다.

한 가지 더 쩐닌 ‘신강’의 불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민망 황제의 4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 내역 중에 쩐닌 7현을 제외하고 진변 4현, 진만 3현, 진정(鎭定) 3현의 토지현과 현승이 후예를 방문했다. 락변부와 진정부에서는 우두머리(宣慰同知)만 방문했다(『寔錄』 2, 65:36). 1834년 응예안에서는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세금 징수가 논의된 바 있다. 그때 대상지가 되었던 게 “예안신강사부(乂安新疆四府)였다(135:14a). 그런데 10년 뒤 민망 황제의 5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로 역시 진녕, 진변, 진만, 진정(鎭定)의 토지현, 현승이 왔으며 락변과 진정(鎭靖)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207:10a). 그 뒤 소치제 초기에 진녕과 진변 두 개 부에서 공물로 상아 2대와 서각 네 개를 보냈다는 기사가 있고(『寔錄』3, 16:4b) 얼마 뒤 궁중에서 행사가 있었을 때 진녕, 진변, 진만 사절이 나타났다(57:12b). 이렇게 보면 비록 쩐닌의 새 땅이 6부라고 하지만 진녕, 진변, 진만 등 3개 부 정도가 비교적 베트남에 고분고분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하게 되면서 라오스로 반환되었다.

## V. 맺음말

만상은 베트남의 번국이 아니었다. 설사 필요에 따라서 베트남 황제들한테 그렇게 인식되었고 적어도 자롱 시대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민망에게 만상은 번국, 심지어 조공국으로도 가치가 없었다. 그에게 태국과의 충돌을 감내하면서까지 만상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다. 사이공으로 도망친 캄보디아 왕을 대군을 동원해 호위해 들어가 복귀시킨 행동 같은 건 분명 조공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태도였다. 그러나 짜오 아누를 복귀시킬 때 민망 황제의 군대가 간 곳은 비엔티안이 아니라 쩌넨이었다. 주력군이 머문 곳이 곧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이주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황제와 번국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배알(朝)이다. 또 한 가지는 임명(封)이다. 즉 조공에 더해 책봉의 절차가 있어야만 종주국과 번국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19세기 베트남은 『대남회전사례』 ‘유원’ 조에서 여러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엔 감로주의 이민족 부족으로부터 만상, 캄보디아, 태국, 버마, 서양 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베트남에 공물을 바치는 건 ‘속국’ 및 ‘속만’이었다. 만상은 ‘속국’에 포함되고 감로주 이민족은 ‘속만’ 중 하나였다. 속국 중에 남장, 만상, 진랍, 수사·화사 등이 있었다. 이 ‘나라’들이 모두 사절을 보내고 공물을 바쳤다. 그러나 책봉의 절차와 사례가 자세히 『대남회전사례』에 기재된 건 오직 진랍과 수사·화사뿐이었다. 수사·화사는 나라의 실체조차 불분명했음을 민망도 인정하고 있던 바였으니 진정한 번국으로 남는 건 진랍뿐이었다. 베트남의 황제들에게 만상은 찾아오는 손님이었지 보호할 책임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설사 진정한 번속국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속지화를 기다리는

후보국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과거 참파가 그랬다. 18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진랍이 그랬다. 만상은 속국이 아니었을 뿐더러 태국 때문에 속지화의 꿈은 꾸지도 못할 대상이었다. 단지 쩌넨은 잃어버린 땅으로 인식되었던 데다가 짜오 노이가 귀부한 마당이니 민망은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황제가 보낸 대군이 머물던 곳은 속지화의 길을 가게 된다. 1820년대 말에는 쩌넨이 그랬다. 1830년대 중반 이후 캄보디아가 그랬다. 굳이 라오스 쪽 한 나라를 들라면 쩌넨의 운명이 캄보디아와 가까웠다. 조공을 바치다가 위협할 때는 해당 나라의 지배자가 베트남으로 피신오고, 베트남으로부터 직관(職官) 임명도 받았다. 베트남의 대군이 들어가 보호하고 내지화의 과정을 겪다가 반발이 생겨나는 것도 유사했다. 싸움 끝에 베트남은 포기하고 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프랑스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면서 베트남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분은 완전히 차단되는 추이 역시 동일했다.

만상은 민망의 영토 확장 사업에서 매우 요긴한 조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인공은 민망과 짜오 아누가 아니라 민망과 짜오 노이였다.

〈참고문헌〉

- 『大南寔錄前編』 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東京, 1961.  
『大南寔錄正編列傳初集』 1889. 慶應義塾大學言語研究所, 東京, 1962.  
『大南寔錄正編第三紀』 1894. 慶應義塾大學言語研究所, 東京, 1977.  
『大南寔錄正編第二紀』 1861.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63.  
『大南寔錄正編第一紀』 1848. 慶應義塾大學言語文化研究所, 東京, 1968.  
『大南會典事例』. Viện Hán Nôm VHv. 1680/45. Hanoi.  
『隣好例』. Viện Hán Nôm A. 63. Hanoi.  
『明命政要』 1974. Bộ Văn Hóa Giáo Dục và Thanh Niên, Saigon.  
陳荊和 編校, 『大越史記全書』,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5.

- Breazeale, Kennon 2002. “The Lao-Tay Son alliance, 1792 and 1793,”  
Mayoury Ngaosrivathana and Kennon Breazeale(ed.), *Breaking  
New Ground in Lao History, Essays on the Seventh to  
Twentieth Centuries*, Silkworm Books, Chiang Mai.  
Trần Hoàng Vũ 2017. *Thoại Ngọc Hầu, qua Những Tài Liệu Mới* (새  
로운 자료들을 통해 보는 瑞玉侯), Nxb. Tổng Hợp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o Chi Minh.  
Mayoury-Pheuiphanh Ngaosrivathana 1998. *Paths to Conflagration,  
Fifty Years of Diplomacy and Warfare in Laos, Thailand, and  
Vietnam, 1778-1828*, SEAP, Cornell University.  
Tran Van Quy 2002. “The Quy Hop Archive: Vietnamese-Lao Relations  
Reflected in Border-Post Documents Dating from 1619 to 1880,  
Mayoury Ngaosrivathana and Kennon Breazeale(ed.), *Breaking  
New Ground in Lao History, Essays on the Seventh to  
Twentieth Centuries*, Silkworm Books, Chiang Mai.

(2019.03.21. 투고, 2019.04.17. 심사, 2019.04.27. 게재확정)

<Abstract>

Nguyễn Dynasty's Decisions towards the Vạn  
Tượng Kingdom:  
Abandoning of a Fiefdom, Gaining of a Piece of Land

CHOI Byung Wook  
(Inha University)

Chao Anu, the most active and honorable Lao leader in the 19<sup>th</sup> century, was severely tortured by the Siamese, and eventually died in an iron cage located in the corner of the Bangkok streets.

The emperor of Vietnam never used his military power, in reality, to protect this miserable king of Vạn Tượng who had been eager to gain Vietnamese support to resist Siamese intervention.

This article argues the reasons for Minh Mạng not to listen to Chao Anu's appeal. What did make Minh Mạng do so? How did Minh Mạng skillfully avoided his responsibility? What was the consequences?

Vạn Tượng had been an important tributary country and the function of Vạn Tượng was very important to the Vietnamese emperor who claimed that he was the owner of the Việt Nam empire. To be an empire, to have enough tribute kingdoms was necessary. In turn, emperor had to protect his kings.

From my point of view, however, Minh Mạng paid more attention to the land than to the loyalties of the kingdoms. In the beginning

he and his officials had the same opinion to be the faithful patron of Chao Anu. As soon as Chao Noi, a chief of the Vạn Tượng kingdom in the region of Xieng Khoang asked the support of Vietnam, Minh Mạng changed his mind. He regarded the Xieng Khoang was the former Trấn Ninh area of Vietnam, and he paid more attention to the job to change the Lao Xieng Khoang area to the land of the Vietnam. Chao Anu was left alone.

This article also deals with more evidence for the reality of Vietnamese view of the tributary countries. The countries that were regarded by the Vietnamese court to have had paid tributes did not mean the Vietnamese emperors had right to appoint the kings of so-called the tribute countries. We have very enough evidence that Vạn Tượng paid tributes to the emperors of Gia Long and Minh Mạng, while the Vietnamese emperors had no rights to appoint the Vạn Tượng kings who had been the subjects of the Siamese rulers. Only Cambodian kings were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Vietnam. But the destination of the tribute kingdom was not a permanent survival. Eventually Cambodia was annexed into the territory of Vietnam. To the eyes of Vietnamese emperors in the 19<sup>th</sup> century, tributary countries were nothing but the candidates for one part of the Vietnamese territory.

**Key Words:** Lao, Vạn Tượng, Vientaine, Trấn Ninh, Xieng Khoang, Minh Mạng, Chao Anu, Chao Noi